

전북도, 청년 삶의 질 개선 '종합정책' 편다

2597억원 투입 청년허브센터 개소 등 윈스톱지원체계 구축 소통공간 '청년마루' 2곳 신축...시·군별 청년협의체 활성화

전북도가 올 한해 2597억원을 투입해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윈스톱 지원하는 청년종합허브센터가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전주시 완산구 흥산로)에 4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준비가 한창이다.

청년 소통장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정부, 도, 시군, 대학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청년이 바라는 정책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허브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군 지역에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생활권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구축(2개소)해 시군별 청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또 청년의 취업, 고용지원과 더불어 주거·건강·문화·결혼 등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환경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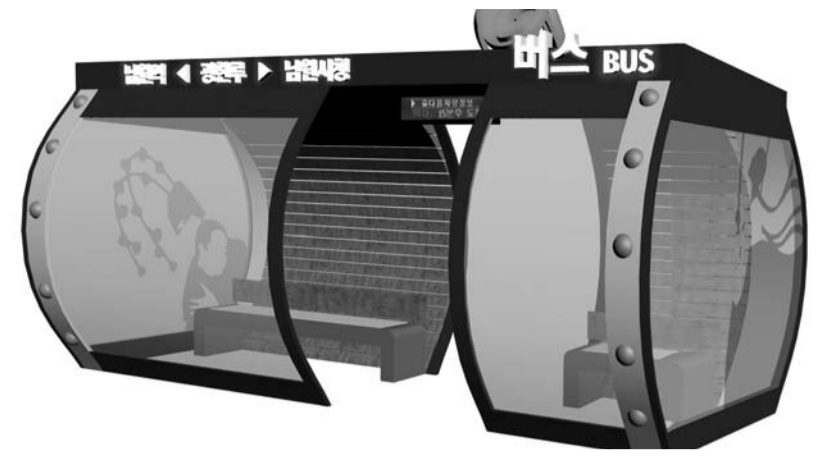
취업·고용지원분야 40개 사업 1671억원, 창업분야 26개 사업 317억원, 문화활동지원분야 13개 사업 176억원, 복지·삶의 질 개선분야 34개 사업 425억원, 거버넌스분야 4개 사업 8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총 117개 사업 2597억원 가량이 청년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8월 시행한 '청년생생카드' 청년할

동수당(1년간 월 30만원 지원)은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021년 대상자 선정부터는 대상범위, 선정기준 등을 보완해 안정적인 청년들의 생활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의 한 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등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체험형 청년사업을 발굴하고, 학업을 위해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결혼 후 삶의 터전을 우리 도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도농복합도시 특성 살린 버스·택시 승강장 새 디자인 선포

남원시가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버스·택시 승강장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인다.

남원시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승강장은 도시농촌복합형, 도시형, 택시 등 3종류로 디자인돼 스테인리스와 강화유리로 구성, 가로 4m, 세로 1.2m, 높이 2.3m로 설치될 예정이다.

새로운 승강장 디자인은 시민여론조사를 진행, 디자인 전문가 심의 위원회를 통해 예술성, 기능성 등을 평가해 5개월에 걸쳐 개발했으며 시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승강장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 각각 디자인됐다.

도·농복합형 승강장(조감도)은 동편제를 모티브로 북을 형상화해 표현됐다.

도시형 승강장은 그네 타는 훈향이의 모습을 담고 있고 택시 승강장은 광한루의 전통적인 건축물로 디자인됐다.

특히 지역적 특성, 계절적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반개방형으로 개발됐다.

현재 지역 내 설치돼있는 509개 시내버스 승강장과 22개의 택시 승강장 중에 올해 상반기 60개 승강장을 먼저 교체하고 하반기와 내년 전면 교체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규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해 최근에 시범적으로 의료원, 부영1차, 하이츠 아파트 앞에 1개씩 승강장을 설치했다"며 "내년까지 읍면 전 지역의 노후 승강장 교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가 상동과 장명동 일원에 조성한 '행복이 자라나는 풍성한 도시숲' 야간경관. <정읍시 제공>

정읍시, 상동·장명동에 힐링 녹지공간 '어울림 숲' 조성

산책길 블라드 조명 등 설치 다채로운 야간경관 연출

정읍시는 사람 중심의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상동과 장명동 일원에 '행복이 자라나는 풍성한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와 시비 약 4억여원을 들여 기존에 방치·무단점유되고 있었던 사유지와 주민 이용도가 낮은 운동공간 등을 정비해 힐링 녹지공간으로

조성했다.

숲 속의 산책·운동·휴게공간이라는 3개의 큰 테마를 정하고 이와 어울리는 수목 400여 그루와 1만여 본의 초화류를 식재하고, 판석길 조성과 흙 포장으로 산책로 230m를 만들었다.

또 야간 이용객을 위해 산책길 주변에 블라드 조명과 스텝 조명을 설치하고, 수

목과 쉼터에는 볼 조명과 간접조명을 설치해 은은한 다채로운 야간경관을 연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시는 숲 조성 공사를 위해 지난해 1월과 2월에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도시숲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냈다는데 의미를 담아 '어울림 숲'이라고 이름 지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립교향악단 오늘 '신년음악회'

군산시립교향악단(이하 군산시향)이 30일 오후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0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군산시향이 정통클래식의 다양한 변모의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비르투오스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1부는 노노 슈라이너의 작품인 '군산의 음악을 위하여' 환상곡 우리나라 Fantasia 'Urania der Stadt Gunsan (군산의 음악을 위하여)'와 '코른골드' 바이올린 협주곡을 우예주가 협연한다.

2부에서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을 선보인다.

프로코피예프가 27살인 1917년에 작곡했으며 샹트페데르부르크에서 초연됐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리듬과 화성을 융합해 현대적 감각으로 작곡해 '신 고전주의의 문을 열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이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윤동욱 군산시립예술단장(군산시 부시장)은 "신년 음악회는 군산시향이 시민들에게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라며 "2020년 경자년에도 다양하고 깊이있는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입장연령은 초등학교 이상 전석무료로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며 현지예매는 공연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하며 선착순 배부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치매조기검사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

고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사 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만 5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해 조기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고위험군, 은둔형 위험

군, 인지기능 저하자 등에 대한 선별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대상자 선별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은 노인들의 기억력, 언어능력, 구성능력, 판단력,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등 총 19문항

의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치매안심센터는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 고위험군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사신청은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환경친화도시 건설 '잔결음'

도심권 분뇨악취 등 원인 조사 용역 시행 등 추진

익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악취저감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익산시는 우선 도심권 분뇨악취 등 주요 악취유형별 원인 파악을 위해 악취조사 용역을 시행한다.

시가 운영 중인 익산악취24에 신고된 6~10월의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분뇨계열의 악취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를 근거로 분뇨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의 확인을 위해 익산제1·2산단과 주요 지점에서 직접 관능법, 공기분석관능법, 기기분석법 등을 통해 주·야, 분기별로 분뇨악취와 지정악취물질 등에 대한 조사용역을 사계절 진행한다.

시는 또 악취 측정자랑을 도입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해 취약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악취배출원을 추적·확인한다.

이 자랑은 전북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된다.

자랑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

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악취 배출사업장 신속에 활용된다.

시는 기존 4명이던 악취 관리인력을 8명으로 증원하고 악취 발생이 집중되는 하절기에는 야간 악취상황실 근무 인력도 보강한다.

악취상황실은 근무 인력을 기존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보강되며 관리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악취와 민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시는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며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악취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해 노후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7억6000만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익산 제1·2산단 등 악취취약지역 우선적으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또 점검 강화로 관련 법 위반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클래식 타일

지중해 스타일